

F1 대회조직위원회 출범

# 10개월 총력전... 최고 대회 만든다

## 경주장 건립공정 60% 내년 6월 완공 교통·숙박 시설·사후활용 대책 시급

세계 정상의 모터스포츠 경주대회인 '2010 F1(포뮬러 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국제자동차연맹이 전남 F1대회 일정을 2010년 10월 22일~24일까지로 확정, 발표한 데 이어 15일 F1대회를 총괄 운영할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F1대회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의 분기점이자, 전남의 운명을 바꿀 핵심산업사업이 될 F1 대회를 앞두고 현재 추진 상황과 남은 일정 및 과제 등을 살펴본다.

◇경주장 건설 순조=지난 9월 F1대회

를 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주장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가 경주장 건설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데 이어 최근 광주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도 F1대회 개최에 필요한 1천9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영암 F1 경주장 건립사업은 내년 6월 완공과 7월 검수를 목표로 15일 현재 6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F1대회를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게 될 조직위원회도 15일 공식 출범했다.

박준영 전남 지사를 위원장으로, 정·재계 인사 등 115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조직위는 정부지원 확보, 기반시설 구축, 공공서비스와 민간지원 조직화,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 대회 총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숙박 및 사후활용 대책 시급=전남도는 F1대회 기간 동안 20만여 명이 전남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교통·숙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통대책의 경우 F1경주장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될 영산강 하구언 도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영하고 버스 전용차로 등을 도입하며 셔틀버스 운행,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임시 전세기 취항, 국내의 항공사 증편 운항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숙박 시설은 6만5천여 개의 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주장 일대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모텔, 한옥마을 등을 확

용하고 외국인 조식 제공, 통역 가능자 배치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빠르고 손쉽게 전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목포에서 경주장이 있는 영암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인 영산강 하구언 도로가 지금도 통행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숙박시설도 경주장 인근엔 특급호텔이 1곳밖에 없고 외국인 등 외부 관광객이 편안하게 묵을 만한 숙박시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전남은 물론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스포츠 행사로서는 최대규모인 만큼 효과적인 대회 운영 및 교통·숙박대책을 마련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시 U대회 유치 비화 묵은 백서 발간

광주시가 U대회 유치비화를 묵은 이야기 백서 '빛의 도시 광주, 유니버시아드 별을 따다'를 15일 발간했다. 백서는 지난 2007년 4월30일부터 지난 5월23일 유치 성공까지 754일간의 탐과 눈물과 담은 기록이다. 시는 이 이야기 백서와 함께 퍼낸 공식백서 '최고를 향한 도전, 그 영광의 기록'을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광주U대회 성공개최 사업설명회'에서 공개한다.

### 광주·전남 '카운티' 묶어 인프라 부족 극복 킬리언 위원장 5·18묘지 방문후 우군 변모

◇생명의 위험 감수한 득표전=박광대 광주시장 등 U대회 광주유치단이 득표전에서 국제 스포츠 연맹(FISU) 수석집행위원인 말렘베트 라레트를 만나는 과정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 호화(?) 관용차량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는 우간다에서 테러 때문에 기관총으로 증무장한 관용차를 보자 공포로 변했다. 관용차량은 범죄와 테러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의 방증이었기 때문이다. 앞선데 달린격으로 숙소에서는 말라리아 공포 때문에 모기 때를 쫓느라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광주 카운티(Gwangju County)'를 아시나요? =광주는 2013년 U대회 유치 도전에서 첫 고배를 마셨다. 광주시의 경기장, 숙소 등 대회 인프라 부족 탓이었다. 결국 극복할 수 없을 것 이 한계는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아이디어로 극복됐다. 힌트는 지난해 8월 북경올림픽이 종목 별 경기장 거리를 1시간 이내로 했다는 데서 얻었다.

김 부시장은 곧바로 광주와 전남도를 묶어 지리·행정적으로 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카운티'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의 도시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뉴욕 카운티 안에는 여러 개 시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뉴욕시의 영향력에 들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전남도의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광주시의 경기시설로 끌어들이 수 있었고,

FISU의 현지실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광주를 방문한 에릭스트롱 FISU 사무총장은 "이렇게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를 2013년에 왜 소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첨단기술·감동마케팅=광주시가 대회 개최지 표결권을 쥔 27명의 FISU 집행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단연 수훈급은 노트북 컴퓨터였다. 광주시는 모두 27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마련해 광주시의 스포츠 역량과 대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유치신청서를 담았다. 광주시는 집행위원들의 모국어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노트북을 받아든 집행위원들이 감동한 것은 물론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13년 대회 유치전에서 광주시에게 패배를 안겨준 러시아 카잔에게 배운 전략이다.

광주 U대회 유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조지 킬리언(83) FISU집행위원장을 감동시킨 일화도 회자된다.

시는 광주를 방문한 그를 5·18 국립묘지로 안내했다. 그는 방명록에 서명하고 분향한 뒤에도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에 찬 표정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5월의 참담한 현장을 수북한 영상을 보던 조지 킬리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군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광주정신에 감동한 것이다.

이후 조지 킬리언 위원장은 대회 유체에 나선 광주시의 든든한 원군이자 후견인이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민주공원 기공

조선대 교정에 들어설 민주화운동 기념탑과 민주공원 기공식이 15일 교내 서석을 앞 광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설립동지회기념사업회, 동창회 관계자,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기념탑에는 7만2천여 광주·전남 시민도인 성금으로 설립한 대학 역사와 70~80년대 학내 민주화 과정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wi@

### 4년후 대학생 절반 학자금 지원

정부는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 2013년까지 107만명으로 늘리고 공적연금 수급률과 양한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각각 85%, 8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의 참여로 마련한 복지 분야 중기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예방 및 보편, 맞춤형 능동적 복지'를 지향점으로 삼아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강화와 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의 연차적 확대,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취업후 학자

금 상환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작년말 현재 31만명 규모의 각종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생들 내년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통해 2013년까지 107만명으로 늘리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중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 비율은 16%에서 54%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74%에서 85%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기로 했다. /연합뉴스

### 내년 47개 기관 국가정보화사업 2조7천억 투입

정부는 내년 한해 중앙부처 등 47개 기관에서 2조783억원을 들여 584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정보 지원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한 144개 사업에 5천212억원이 투자된다. 또 원격근무센터 같은 '그린 사무실' 구축 등 16개 녹색정보화 인프라 확충 사업에 1천611억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1천100억원이 투자되며, 법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53개 사업에 1천611억원이 배정된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국가정보화 정책에서 사람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지난달 대통령소속 민간합동위원회로 출범했으며, 공동위원장은 정 총리와 이각범 KAIST 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미래지향적 제를 발굴키로 하고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신입생 : 2009. 12. 1(화) ~ 2010. 1. 8(수)  
편입생 : 2009. 12. 1(화) ~ 2010. 1. 23(수)

합학연내 : 062)973-51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선택도 전략이다**

자기개발 전략피피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합학연내 : 062)973-51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합학연내 : 062)973-51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